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1월 1일 <월간>

www.je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7호

신년축시

어미의 소망으로 - 乙未년에 부쳐

東甫 김길웅

시인 · 수필가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부들부들 사랑스러운
양떼 배냇저고리 바름질에
땀방울이
꼭지모자 턱받이 손발싸개 퍼낸
어미의 손이
乙未 새 아침을 여네

기억을 내려놓았다 진실 멀어지지 않아
눈 감아도 세상 사라지지 않아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세듯
글썽 작은 거제도도 발돋움하여
행복이란
작은 일상에서 주는 것이지

얼음장 밭으로 겨우내 물은 흐르네니
이끼 배냇저고리에 웃음 눈부신
어미의 소망으로
저기 들판으로 내달리어
한 줌 마른 풀
양들 양으로 밀어 줘야지.



사회복지시설 설립 기준 완화

2015년 사회복지계 변화

2015년 을미년부터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는 등 사회복지계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5일 ‘수용인원 300인 초과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현행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에서 복지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확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

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규모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3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타당성을 갖게 됐다.

사회복지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격이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는 법안도 상정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중대범죄시 자격 정지 등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해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완화로 가닥이 잡혔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지면소개

특집	2·3면
신년사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①	
사회복지소식	4·5면
한경찬 (새동려 이사장 등재 선정 장애인 어울림 떠앗합정단) 글상 수상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종합	7면
제주행복기자단 ④	
푸드마켓 12월 식품기탁자	
전면광고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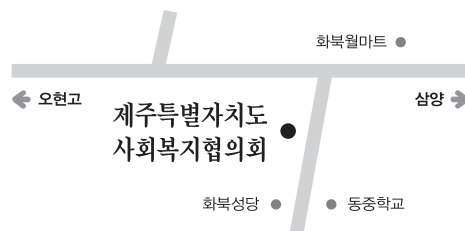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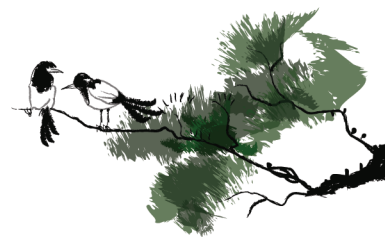
2015 을미년(乙未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초대합니다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5. 1. 7(수) 11:00~13: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 행사내용 : 새해인사말씀
사회복지 공헌자 시상
참가자 교례
경품추첨
오찬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신년사

더욱 겸손하게 ‘제주형 복지모델’ 정립에 박차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마무리되고, 새해 새롭게 세운 목표들도 멋지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선6기 도정도 시대적 사명과 도민들의 바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규모 개발투자 원칙 재정립,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한·중 FTA 대응 등 중요한 현안과 과제들이 하나 둘 정리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질책까지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을미년 새해는 제주의 가치가 대한민국과 세계로 더

욱 뻗어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더 큰 복지로 더 살기 좋은 제주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 관광객, 이주민 등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제주사회가 다양화되는 만큼 ‘제주형 복지모델’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대응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양육과 재활·교육·취업

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 광역치매센터 설립 운영 등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도 더욱 겸손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변화와 소망을 일궈 가기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난홍방(多難興邦)’의 정신으로 서로 믿고 화합해야



구 성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푸른 양의 해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양(靑羊)은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성격이 순하면서도 적극적인 양이 만났다고 해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데, 도민과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도 청

양의 해가 주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에도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고 분발해 부흥을 시킨다는 뜻을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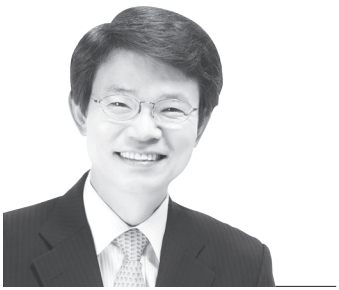
‘다난홍방(多難興邦)’의 정신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 것만으로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결국 돛이나 엔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복지서비

스가 탄탄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운기를 느끼며,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소망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원칙으로 제주교육 실현



이 석 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사랑하는 도민과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웃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평소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지난해와 같이 소통과 공감의 원칙 속에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더 소통하고,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교육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장애학생,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교육에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께서 제주교육에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에게 인정받기 위한 당당하고 겸손한 걸음 필요



고 치 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고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기 위한 노력

을 해 온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5년은 지난 해 우리가 확인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 해 보다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할 시기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내딛어야 할 걸음은 오로지 도민사회를 위한 당당하지만 겸손한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거부하는 시혜와 동정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2015년을 사회복지계가 도민사회 속에서 자신있게 인

정받고 도민사회 한 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모두가 소원을 이루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① - 노인복지분야 · 장애인복지분야

김 옥 희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장도민 모두가 고령사회의
안전망이자 수호천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 오신 재가노인복지협회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복지환경을 시장 속으로 내몰아 ‘도전과 응전’의 상황에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요구되어지면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여 시설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제주에서는 제25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를 통해 집결될 역량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적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모두 고령사회의 안전망이자 수호천사입니다.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요양문화 선진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김 재 익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장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새로운 목표와 소속감 필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사회복지를 아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도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 새아침을 맞아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2015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수발 책임의 요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노인복지협회 소속 요양원은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저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와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활기차게 을미년 새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은 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장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아름다운 단체로 만들 것

2014년 갑오년 한 해는 국민들이 숨을 쉬는데도 불편했던 한 해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며, 일부 재가 장애인들의 추위에 떨며 겨울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 볼 수가 있다.

2015년 을미년의 새로운 해를 맞아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혼자만 앞서가는 사회가 아닌 조금 늦어지더라도 장애인과 함께 그리고 회원단체와 같이 가는 아름다운 장애인단체를 만들고자 한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복을 싣고 오고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제주지역 장애인단체간의 화합을 위한 단체장과 의 회의, 기관장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단결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당사자 모두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 보 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협회장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복지를 기원하며

새해 을미년(乙未年)은 ‘청양(靑羊)의 해’로서 우리 조상들은 선하고(善), 의롭고(義), 아름답음(美)을 상징하는 동물로 양을 섬겼다고 한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리 사회복지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양이 상징하는 의미를 배우고 본으로 삼는다면 가장 제주적인 제주사회복지를 이룩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내딛는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이 내딛는 한걸음이 더 가치있음을 깨닫고, 지치고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걸음씩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제주인, 제주사회복지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제주적인 사회복지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상서로운 기운을 머금은 ‘청양의 해’ 새해에 민·관의 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복지, 하나된 복지 비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이 흥 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꿈은 자신이 무한한
노력을 담는 그릇

다사다난했던 2014년 청마의 해가 지나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 한해는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한 한 해였습니다. 이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종사자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로이 하고 항상 주변을 살핌으로써 이용자들이 마음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

꿈을 가진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펼치는 한 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 영 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청양띠의 의미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온화함이 넘치는 해가 되길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찬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은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연대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은 남에게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러움, 번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5년은 청(靑)의 기운이 듬뿍 담긴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대로 온순하며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내에 융합이 잘되며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넓다고 합니다.

청양띠의 의미처럼 사회복지계는 물론 사회공동체의 분위기 또한 머리에서 가슴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다름없이 온화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은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5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한경찬 (사)동려 이사장 등재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5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로 사단법인 동려 한경찬 이사장(사진)을 선정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 1975년 동려야간학교를 설립하여 39년간 학교 밖 청소년 및 성

인들에게 초·중·고 과정의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제주도에 평생교육의 길을 열어 왔으며, 동려교육 문화원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및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에

서 실시한 ‘201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 이사장이 활동한 봉사시간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실적만도 총 475회 2462시간이다.

5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한 이사장은 “자신을 드러내기 않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 이런 영광을 안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 이사장에게는 오는 7일 협의회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등재기념패와 함께 순금배지가 수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회관 로비에 마련된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과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 그의 공적과 약력을 게재하게 된다.

추진사업보고 및 평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 달 22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추진사업 보고회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와 토론을 통해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정책 개발 및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소/식/마/당

빛누리실버연극단 11회 공연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에 소속된 제7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지난달 15일 ‘하귀 2리노인학교’를 마지막으로 한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해’라는 작품으로 10주년 특별공연,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등 총 11회 공연을 펼쳤다. 2015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연극 활동을 재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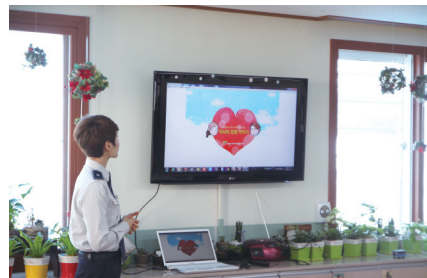
‘내가 그린(Green) 내 마음속 힐링’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 달 10일을 끝으로 2014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인 중증장애인의 부적응행동 감소를 위한 힐링원예활동 프로그램 ‘내가 그린(Green) 내 마음속 힐링’ 사업을 종료했다.

이 사업은 거주인(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9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제주동부경찰서의 협조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에 대한 위기상황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영상을 통한 사례 시청과 대처 요령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폴신제주점 의류 후원



센터폴신제주점(점장 박은미)는 지난달 8일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를 방문해 250만원 상당 기모점퍼 26벌을 후원했다. 의류후원으로 추운 겨울 활동이 많은 이용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아듀2014! 가정위탁을 말하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2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도내 모범아동 및 지역주민, 지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나눔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적인 아동과 위탁부모 11명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감동의 편지낭독, 추진현황 보고, 공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배움터 가족 송년의 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달 13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2014 일배움터 가족 송년의 밤’을 열었다.

근로장애인과 가족,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일배움터 모범상 시상식을 비롯해 한 해 활동보고 영상 상영, 만찬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영열 원장은 “한 해 일배움터에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업보고대회 및 장애인가족한마당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달 12일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구청지 도의장,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사업보고대회 및 장애인가족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일 년간의 활동과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 화합의 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렛츠런파크제주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렛츠런파크제주(제주지역 본부장 이수길)는 지난달 11월 26일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에 장애인복지에 사용해 달라며 노래방기기(130만원 상당)와 기부금 360만원을 전달했다.

행복한쉼터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TV, 일체형PC 및 노트북, 빔프로젝트, 스크린)를 구입하는데 기부금을 사용했다.



“김장으로 따뜻한 사랑 나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과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이 후원한 ‘201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달 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사진).

‘건강한 학교 만들기 발표대회’ 실시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 11월 29일 제주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도교육감상)= △서귀포여고(인어공주) △제주여자상업고(학생회)

▲금상(시교육장상)= △남주중(나는 실천하는 나비) △한림여중(투클래스) ▲은상(춘강이사장상)= △남주고(1학년 3반), 삼성여고(삼순이들) ▲동상(관장상)= △남주중(맨발의 꿈) △서귀중(앙여중(중앙반크) △서귀포중(서중보이) △제주여중(학생회) ▲특별상 = △서귀포중(김도훈)

교통약자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요금 인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대수인 40대를 충족함으로써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도내 장애인 1~2급 7632명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및 이용요금 인하를 단행해 나

갈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현재 1~2급 6개 장애유형에서 15개 장애유형으로 확대되며, 이용요금인 경우도 중형택시 요금의 35%에서 25%수준으로 인하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관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전화예약제 및 1시간전 당일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756-8271, 8277~9번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 어울림 띠앗합창단 ‘금상’ 수상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는 지난달 3일 전주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사진).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장애인합창대회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전국 시·도 예선을 거쳐 16개 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쟁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올리게 됐다.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단장 박효민)은 2011년 3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속 제주여성장애인합창단으로 창단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2012년 8월에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소/식/마/당

동전모아 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지난달 12일 ‘평화의 섬 제주 사랑의 동전발 동전모으기’ 캠페인 모금액 중 37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빵 저금통을 배포하여 기부된 모금액은 1억2300만원이다. 이 중 3700만원은 도교육청을 통해 총22명의 도내 난치병어린이가 치료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미얀마와 필리핀의 교육사업에 후원 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출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지난달 13일 고려회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열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창립총회에서 김효철 발기인대표(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표창 수여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세미나’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관계형성을 위한 벽화만들기 프로젝트’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보조공학 세미나 진행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아예홍)는 지난 11월 27일 제2회 보조공학 세미나 ‘장애인 보조기구의 접근성 향상 및 활용극대화 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동훈 나사렛대학교 보조공학센터장은 휠체어 앉기 자세, 컴퓨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에 대해 설명했다.

시론

적폐(積弊)와 대참사(大參事)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새해를 맞아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세월호대참사. 39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사고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재난관리체계가 잘 되어 초동대처만 잘했다라면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원망과 절규로 변한 끔찍한 대참사였기에 그 처절함이 트라우마 되어 현실에 투영된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들의 바람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개탄스런 현실의 공분(公憤)은 하늘을 찌르고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겼다. 차라리 자연재해였으면 하늘이나 원망하고 말걸, 잘못된 구조적 관행과 적폐에 의한 인재였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치미는 것이다.

대참사는 수사결과 선박증축, 화물과적, 평행수 부족, 화물의 결박상태 등 총체적 불량 이었고, 이를 묵인하거나 간과한 관련감독기관의 잘못된 적폐가 원인이었다. 탑승자 명단 조차도 정확치 못했고, 더욱이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선장과 선원, 해경 등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늘날 선진국을 향하는 대한국민인의 현주소인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참사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꼴볼견이었다. 서로 간 정보공유는 차치하고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자기만 공을 세우려는 팽배한 기관이 기주의만 보였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만,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지. 적폐의 실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단죄되고 있다. 처벌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산환수나 몰수 등 수습을 위해 기관의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 해피아, 관피아들이 등

장했다. 갑과 을의 구조 속에서 잘못된 융합으로 상부상조하는 그들만의 먹이사슬,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 안전 불감증.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만 있고 범법, 탈법행위가 따로 없었다.

부조리와 적폐의 척결은 시대적 사명

이러한 적폐의 결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적폐는 비단 이번에만 나타난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기관단체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있다. 잘못된 관행의 먹이사슬이 희망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부조리와 적폐의 척결은 지속적인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과 함께 꼭 이루어야만할 위정자들의 몫이다.

새해에는 다시 이런 큰 사고들이 되풀이 되서는 정말 안된다. 이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안전조직의 새 틀을 짰으니, 그 구성원들은 역할을 다하여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야만 할 것이다.

칼럼

2015년 청양띠 새해에 부쳐



한영조

제주경찰청 공동대표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의 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누구나 새로운 것에는 희망을 담는다. 희망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상징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해의 기원을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맞이에서 찾기도 한다.

2015년은 ‘청양띠의 해’다. 양띠해인 ‘을미’는 60간지 가운데 32번째에 해당된다. 또한 ‘청’은 색깔을 의미한다. ‘갑을병정...’으로 나열된 십간(十干) 가운데 ‘을’의 순서가 색깔로 치면 청색에 해당된다.

양의 털색은 흰색이나 검은색·갈색·붉은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색을 띠는 경우는 거의 없다. 히말라야 블루양 정도이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표범의 먹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색의 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청색을 지닌 양은 매우 희귀하다.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상징의 해

양은 음(陰)의 성격에 가깝다. 을미년의 을(乙)과 미(未) 모두 ‘음’에 속한다.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양(陽)의 성격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온순한 성격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갑오년 청말띠인 지난해 성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를 상징했던 말(馬)은 진취적이며 민감하며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는 생동감과 순발력, 거친 숨소리 등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다. 여기에 강한 청색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거친 한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성적인 양의 순수성에 청색이 가미되고 있다. 청색의 특성은 빠르고 직선적이다. 즉 ‘음’으로 상징되는 양의 순수한 성격을 진취적인 청색이 보완해 주고 있다.

그래서 2015년 양의 해는 이해심이 많고 조용하면서 진취성이 융합된 해다. 무리생활을 즐기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이기주의를 벗어나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상징의 해다.

‘정의’와 ‘정직’이 대표되는 양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인내를 가지로 한 가지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독심이다. 서로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또한 그렇다.

사회복지계 역시 청양띠 새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중심에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의 가교역할 또한 더욱 기대된다.

기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김수완

도사회복지협의회(전)상근부회장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임기 3년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방법을 찾던 차에 이 귀한 지면을 빌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의 임기를 돌아보면 개인적인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

복지현장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접하며 얻은 깨달음은 인생 최고의 수확이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들 속에서 ‘존경’이라는 단어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계에 한 말씀 드린다면 민간 사회복지계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파트너십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저마다의 이해와 가치들로 인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된 행동을 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신뢰하고 협력하지 못하면서 행정기관에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사회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 둘씩 성과를 얻어가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계가 협력할 수 있다면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수준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사회복지현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원인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부소방서 - 도협의회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기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서장 정해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서부소방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복지·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U-안심콜 홍보 및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심폐소생술(CPR)교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U-안심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다.

도내 장애인가족 위기대응 위한 8개 기관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2일 제주장애인가족회교육장에서 '위기 장애인가족 협력지원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가족의 위기발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

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낮은올타이어린이집, 해안어린이집, 유진어린이집 등 8개의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협약기관은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가족의 위기발생 예방 및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행복기자단 • 4

2014 뉴스포츠페스티벌 개최



▲지난달 4일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에서 2014 뉴스포츠페스티벌 '애들아 NEWS포츠와 함께 놀래'가 열렸다.

지난달 4일 중문동에 위치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주최한 2014 뉴스포츠페스티벌 '애들아 NEWS포츠와 함께 놀래'가 열렸다.

뉴스포츠는 경쟁적이고 복잡한 기존의 스포츠 활동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말한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기존의 스포츠와 비슷한 규칙과 도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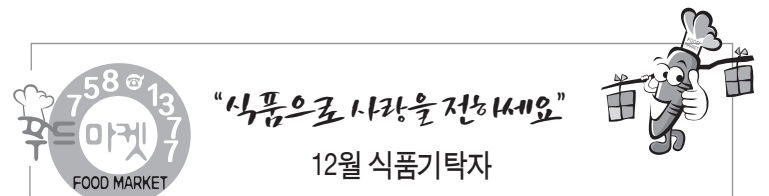
사용하되 보다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는 않았지만 학교 정규 과목 및 방과 후 교실 등에서 뉴스포츠교실이 운영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지역 13개 학교 장애·비장애 학생들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인디카, 컬링, 플로어볼, 핸들러, 후크볼, 한궁 등 뉴스

포츠 6개 영역을 체험하는 체험부스 운영과 스포츠 스타킹, 킨볼 종목에 대한 경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 김승남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던 뉴스포츠 종목에 대해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애·비장애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뉴스포츠의 정신을 잘 배워서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순 기자



▲SH유통=초콜릿(200g)129개 ▲개발공사=삼다수(2L묶음)100개 ▲손뜻모아봉사회 회원=감귤280kg ▲제주양돈농협=600만원 상당 돈육세트 ▲금강수산유통=훈제오리(800g)40봉 ▲금강축산유통=돈반골(1kg)360봉 ▲김치원=김치 3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78개 ▲농협여성단체=쌀(7kg)24포 ▲대왕땅콩상회=주스(180ml)216병 ▲덴마크우유 제주대리점=우유 39갑 ▲동원F&B제주=300만원 상당 식재료 2347개 ▲삼다유통=삼다수(2L묶음)300개 ▲상공회의소 청년부 일동=쌀(10kg)25포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김치(10kg)20통 ▲서문식품=100만원 상당 두부 502모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400만원 상당 신선채소류 124상자 ▲신한은행=김치(3kg)120봉 ▲얹얹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299봉 ▲이든이네=건멸치 6kg ▲자연드림이도점=빵 166봉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177봉 ▲행복나눔마트=20만원 상당 식품 ▲삼다라이온스클럽=성금 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대회 홍보부스=23,000원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760,000	560,000
복지사업후원	955,000	253,000
푸드마켓후원	2,485,000	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윤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謹 賀 新 年

새해 福 滿이 반으심시오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에도 저희 사회복지계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이웃들간에 정겨움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사랑이 '제주사회복지의 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고 치 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황의식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 허순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의회장 김옥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의회장 김재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의회장 이상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 임말시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의회장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의회장 김성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의회장 고은택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장 김영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윤보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이흥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최영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장 박정해

